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자비심 낼수록 살맛나는 세상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바로 내 이웃에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단지 지금의 내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대부분 외면해 버리기 일쑤다.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보시의 중요성을 설하고 있는데, 자비심으로써 다른 이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무주상 보시를 권하고 있다. <아함경>에는 '바르게 모은 재산을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이는 두 눈을 갖춘 사람이고, 모으기만 할 뿐 베풀지 않는 사람을 한쪽 눈밖에 없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다.

● 불교계, 나눔에 인식

50여 사회복지법인 산하 4백여 인가 복지시설과 3백여 비인가 복지시설이 있는 불교계에는 나눔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 장애인, 고아, 무의탁 노인들을 살고 있는 복지시설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들 복지시설들은 정부 지원금, 운영자의 사비, 후원금으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으나, 정부 지원금은 기대 이하를 맏도는 실정이고, 사비의 출연도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복지시설에게는 후원금이 큰 힘이 된다.

그러나 불교계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불자의 몇 %가, 어느 정도를 '후원' 하지는 지에 대한 통계조차 없을 정도로 불교계의 후원문화는 적박하다. 복지시설의 후원 현황을 보면 상황이 훨씬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불교계의 대표적 복지시설인 원주 소적새마을은 최근 2년간 후원금이 30%가량 감소했다. 후원자들이 후원을 끊거나 규모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정은 연꽃마을이나 불교 자원봉사 연합회를 비롯해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복지기관 및 노숙자 시설들 역시 예외가 아니다.

● 후원금, 왜 부족하나
'부정적이고, 연말연시 등 반박 보시가 많기 때문이다. 후원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후원에 대한 불자들의 생각이 우선 바뀌어야 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이호걸 과장은 지적에서 '어디에, 어떻게 보시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가 없어 자발적 참여 의지를 가진 사람마저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립노인요양원 권경일 원장). '기금조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대부분이 소식지 발송과 지로 납입에 한정되어 있다. 장학금 등 보시자가 지정하는 '맞춤식 기금'이나 아이디어 기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시간 나눔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진각복지재단 고태리네집 임성봉 소장). '후원자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는 것도 한 이유다. 후원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각 시설과 단체들의 안이함에 불자들의 호응이 낮은 것은 당연하다' (중앙승가대 류승무 교수) 등의 지적까지 다양하다.

● 불교계 후원문화, 이제 시작

이에 따라 불교계 복지법인들은 요즘 성금 모금의 다변화를 꾀하는 데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후원 회원들에게 소식지를 발송하거나

연말 정산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이미 고전적인 관리 방법이기에 때문이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과 승가원은 ARS 성금 모금전화를 2001년 신설했고,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08배 릴레이 행사'를 기획, 결식아동 후원금을 모금했다. 복지시설 역시 후원금 확충을 위한 아이디어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청담사회복지관은 금천구 관내 업소들의 지원을 받아 사랑의 모금함을 설치했고, 강북장애인복지관은 강남 봉은사와 함께 '사랑의 저금통'을 배포했다. 대구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보시자에게 무료적성검사를 해주고 있으며, 관악구 지장사 까치마을은 후원회원들에게 까치마을 수련원 농장에서 만드는 전통식품을 할인 판매하는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상설 물물 교환 장터'를 개설하는 복지시설도 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시설에 대한 후원의 주체가 되는 선행단체에서도 다양한 보시 형태를 선보이고 있다. 우리는 선우 '시간·재물 3% 이웃위해' 전북 불교단체 '천천클럽' 운영 성과 인덕원·승가원 ARS전화 작은 정성 모여

물의 3%를 이웃과 사회를 위해 쓰자는 결사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아직 방향은 적지만 참여불교재가연대도 정기소득과 유산의 1% 보시, 주간·월간 단위 시간의 1% 봉사활동 참여, 1% 나눔을 위해 기도하기 등의 '나눔을 삶'을 위한 4대 방편'을 제시하고 불자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또한 전북 지역 불교단체가 시작된 타종교인의 동참까지 이끌어낸, 1천명이 천원씩 내는 '천천클럽'과 'Give 5%' 캠페인을 전개하는 도봉경찰서 불교회, '1지부 1복지시설 결연'을 추진키로 한 불자교정인연합회, '매달 1,000원 보시' 캠페인을 전개키로 한 철도청불교협의회와 성북구청불자회 등도 좋은 예이다.

이에 대해 소적새 마을 원장 현각 스님은 "후원금은 원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돌보아 주고 염려해주는 이들이 있다는 데에 안도하게 하며, 살아가는데 용기를 준다"며 "불자들의 정기적인 후원문화가 빨리 정착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보급자리 나눔의 집 원장 능광 스님은 "큰 돈이 있어야만 나눔을 도울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후원금 보내기'에 장애요인인 것 같다"고 지적하고, "정성스럽게 보내는 한푼 두푼의 후원금이 내 이웃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작은 보시라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환한 웃음을 선사할 수 있다. 사진은 환한 웃음으로 후원자를 맞고 있는 서울시립 노인요양원 할머니들.

"월급 쪼개 나눔실천 오히려 행복"

17년간 매년 2백만원 이상 기부 전국경찰불교회 박희영 사무국장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데 보시만큼 좋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다." 84년 무의탁 폐결핵 환자들이 살고 있는 '한 삶의 집' 후원을 시작으로, 한재 소적새 마을, 연꽃 마을, 나눔의 집, 성양원 등의 복지시설에 매달 2만 원씩을 후원하고 있는 전국경찰불교회 사무국장 박희영 씨(경철정 전산과 입력실장·50). 박 씨에 따르면 보시는 여유의 돈을 주는 게 아닌, 사회적 투자이며, 보시는 시실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계속 해야 하는 책임도 지니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처자식이 있는 월급쟁이지만, 나보다 불행한 이웃들을 위해 매달 월급을 쪼개는 일이 즐겁다"며 "실시 일반 정성을 모으는 일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도리어 즐거운 일"이라고 말했다.



운영에도 도움을 주어야 하며, 후원 이후 복지시설의 변화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박 씨는 "처자식이 있는 월급쟁이지만, 나보다 불행한 이웃들을 위해 매달 월급을 쪼개는 일이 즐겁다"며 "실시 일반 정성을 모으는 일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도리어 즐거운 일"이라고 말했다.

불교계 밖에선 ...

지로납입을 주요 후원 방법으로 삼고 있는 불교계와는 달리, 일반 사회에서 불우이웃이나 복지시설을 후원하는 방법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ARS나 자동이체 후원은 기본이고,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는 것으로 약정된 경매 용품, 보험 상품, 연극 티켓, 문화 상품권 등이 판매되고 있다. 또한 개인이 소유한 재물과 시간의 1% 기부하겠다고 서원한 사람이 늘고 있고 운동선수 중 성적에 따라 약정 금액을 장애인과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일에 쾌척하는 사람들도 많다.

'아름다운 재단'의 1% 기부 캠페인에는 개인들 외에도 매달 공연 관람권 1%를 기부하는 동송아트센터와 공연기획210, 보험 가입자가 훗날 보험금 1%를 기부하겠다고 약정하고 다양한 세세 혜택을 받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 영풍보험 등이 참여할 정도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 캠페인은 매달 1%를 기부하는 나눔의 가게, 유산 1% 나누기, 월급 1% 나누기 등 각종 영역에서 1% 나눔 운동의 유행을 낳았다. 전자경매카드를 판매하고 있는 '올댓'은 경매장에

월급 1% 나누기 골퍼 '버디' 때 기금 적립 단체·개인 후원 '다양'

선보일 용품 가운데 판매시 1,000원을 기부하는 용품을 정해놓고, 수익금 일부로 한국이웃사랑회의 '사랑의 도시락 나누기' 캠페인을 후원하고 있다. '사랑이 가득한 사회를 위하여'는 ING생명보험(주)과 함께 '사랑의 보험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프로골퍼 허석호 씨의 '사랑의 버디' 운동도 빼놓을 수 없다. 허 씨는 버디 1개 당 2만원, 이글에는 5만원씩을 모아 연말에 장애인선교회의 '휠체어보내기'에 동참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벤처기업들과 '한사랑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월급에서 1000~1만원씩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모금회에 매월 입금되는 돈이 1200만원에 넘는다. 이 단체는 물건을 살 때 카드에 쌓이는 포인트를 기부하는 '포인트 기부', 약정금액이 휴대폰 요금에 가산되는 '휴대폰 기부' 등의 원거리 기부 방식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기부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프리챌(freechal.com)은 '나눔세상채널' 코너를 개설, 기부 상품을 만들고 구매액 10%를 적립하는 후원 방법을 선보였다. 전자결제업체인 데이콤사이버패스(cyberpass.com)도 사이버머니를 이용한 심장병 어린이 돕기 행사를 펼치고 있고, 야후코리아(yahoo.co.kr)는 '야후 문화상품권'을 이용해 이웃을 돕는 '사랑의 해피머니'를 실시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hapa.com

2002학년도 대원불교대학 입학안내

- 30년 전통 2000여 동문의 교계 최초의 불교 교양 대학 -



대원불교대학 전경



▷ 대중불교 운동의 실천



▷ 넉넉한 교육환경



▷ 불교전문 도서관 운영



▷ 30여 년의 전통과 2,000여 동문

| | | | |
|-----------------------------|--|-------------------|------------|
| ■ 강의시간 | 3월 4일 개강 주 3일 출석, 5과목 강의 야간수업 | | |
| ■ 지도교수 | 최봉수(동국대), 장휘욱(동국대), 허경구(동국대), 김사업(동국대), 김종욱(동국대) | | |
| ■ 특별초빙교수 | 마일운 스님(법패 전승자) | | |
| ■ 교육과목 | 1학년 1학기(14주) · 불교학 개론 · 인도불교사 · 불교경전개설 · 불교문화특강 2학기(14주) · 원시불교 · 아비달마(구사론) · 반야사상 · 불교의식 실습 2학년 1학기(14주) · 유식사상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현대불교윤리 2학기(14주)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정토사상 · 선사상 · 우리말불교의식 | | |
| ■ 모집 및 전형(2년제 야간 - 출강·통신과정) | | | |
| 모집과목 및 인원 | 지원자격 | 제출서류 | 전형방법 |
| · 불교학 출강 00명 | · 체계적으로 불교교육을 원하는 자 |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 서류전형 |
| · 불교학 통신 00명 | ·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 보유자 | · 주민등록등본 1부(사적3매) | · 합격자 개별통지 |

- 원서교부 및 접수 2002년 2월 20일까지(금) 본 대학 교우과
- 입학식 2002년 3월 3일 오전 10시
- 특전사항
 - 법사과정 이수 후 법사호 수여 · 포교실습 지방자 법회처 제공
 - 포교당 종교법인 보호 · 성적우수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大圓佛敎大學 학장 해거스님

140-19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 (02)773-9171, 776-7156, 754-1613 FAX : (02)756-7258

불기 2546년 성도절 기념 대원불교대학 동계 수련대회

- 일 시 : 2002년 1월 18일 ~ 20일 (2박 3일간)
- 대 상 : 대원불교대학생 및 일반 불자
- 참가비 : 30,000원
- 장 소 : 대원불교대학(서울 용산구 후암동 소재)
- 초빙교수 및 강의 내용
 - * 장휘욱 교수 : 관세음보살 보문품강독
 - * 최봉수 교수 : 인도불교의 이해
 - * 김사업 교수 : 종관사상의 이해
 - * 허경구 교수 : 부파불교의 이해
 - * 마일운 스님 : 삼보통칭 실수
 - * 민법현 스님 : 불교와 레크리에이션
 - * 김종욱 교수 : 불교와 도
- 준비물 : 세면도구, 필기구, 간편한 운동복, 간단한 침구
 - * 수련일정 중 식사는 발우 공양을 합니다.
 - * 성도절을 맞이하여 철야행영정진을 합니다.
 - * 수련 규칙 위반시 퇴짜조치 합니다.

대원불교대학에서 일할 사무직원을 모집합니다

- 대 상 : 여사무원 1명
- 자 격 : 초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OA 사무가 가능한 자 [불교전공자 우대]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졸업증명서
- 제출기한 : 2002년 1월 31일까지